

[**종합·해설**]

처리 시한 코앞 바빠진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4조~5조원 줄여라”

SOC 심사 싸고 여야 입장차 진통 거듭

여야 합의 예산처리 시한인 12일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0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최대 쟁점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나 심사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심사에 필요한 SOC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원활한 심사가 어렵다고 맞섰다. 양측간 입장차가 확연한 가운데 좀처럼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4시께 일제히 퇴장했고,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은 15개 가량의 SOC 관련 예산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운하 의식 예산으로 문제 삼았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 4천 680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고, 민주당이 저지 방침을 밝혔던 이른바 ‘형님 예산’인 포항 관련 일부 SOC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 심사를 강행하자 거세게 항의하면서 즉각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밤을 새워서라도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지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예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조정소위는 이날 현재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284조원인 가운데 4조~5조

원을 삭감하는 등 증액분까지 포함해 5천억~1조원의 순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모두 4조~5조원을 깎고 3조~4조원을 증액시켜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SOC 예산을 포함, 총 4조5천억원의 감액과 증산증·서민 일자리 확보 예산 등 4조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총 감액 규모를 좌우할 SOC 예산 삭감과 관련, 민주당은 SOC 총예산 24조8천억원 중 3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원안 고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의 수정예산안 중 이날 현재까지 삭감된 규모에 대해 한나라당은 1조2천억원, 민주당은 1조3천억~1조4천억원대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정부·국회 업무추진비 10% 삭감

경제난 극복 대책...“방만한 공기업 예산 철저히 심사”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 정부 부처 장·차관 및 국회의원의 활동경비 10%를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

시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심의의 큰 방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빈곤층 등 서민의 고통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기관장의 각종 활동비 지원 예산 등 업무추진비와 국회의 의원실과 상임위 운영비, 국회의원 등 활동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겠다”면서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예산을 증대시키고,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직원 평균 임금이 9천만원을 넘는데도 사내복지기금에 지원을 과다하게 하는 등의 방만한 공기업 예산은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기관에 이미 쌓여 있는 돈은 국고로 환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공공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교육세 폐지 논란과 관련,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는 데 따른 재원보전 대책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45%로 올리기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초 마련되는 교육재정보다 700억원이 더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지방발전대책으로 지방 소재 기업에 세금을 할인해주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지방 기업에 대한 세계 혜택 외에 지방에 내려간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낮추자는 것인데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벌의 언론 소유 절대 반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및 야당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의 7개 언론관련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재벌의 방송소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및 야당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나라당의 7개 언론관련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재벌의 방송소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임시국회 대격돌 예고

12일까지 감세법안·예산안 처리...쟁점 법안 공방 불가피

새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가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국회는 우선 오는 12일까지 감세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일괄 처리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들이 널려 있다. 여야가 12일까지 처리를 합의한 예산안도 문제지만 쟁점 법안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문·방송

경영 규제완화, 북한인권법 등 법안을 적극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또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경제살리기법’이라고 규정하고 “절대적으로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한다”(홍준표 원내대표)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벌 특별법’이라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신문·방송 경영 규제완화 등을 ‘개혁법안’이

라 자칭하며 드라이브를 걸 각오지만 야당 측에서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벌써 투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합의 처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세법 등 감세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하다가 막판 민주당의 실력지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무산되면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기획재정위가 11일 상정할 예정인 교육세법 폐지안을 놓고 여야간 한바탕 격돌이 예고돼 있다.

목적제 폐지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등 보완대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어린이를 달라고 있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이 영향을 받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농특세 폐지 반대 투쟁 선언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김우남·조배숙·최규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농특세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때 농어촌 관련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농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농특세

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에 6.9%에서 2007년 6.7%, 2008년 6.2%, 2009년 6.0%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 5.5%까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농특세 폐지로 농어촌분야 재원확보가 어렵게 되면 이는 한·미 FTA의 선(先) 대책과도 완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농어촌은 현재 비료·사료값 등 원자재값 상승과 한미FTA 등 농어업시장 개방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SOC사업 확충 등을 위한 원활한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농특세를 유지해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농특세법 폐지법률안’이 안전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아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 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곽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view.net

에듀뷰넷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바뀐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 문의 광주 (대)529-0090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저렴한광고비 뛰어난 광고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直通전화: 227-9600
FAX: 227-9500

구직 · 운전 · 모집 · 초빙 · 영업 · 모임 · 매매 · 임대 · 전세 · 부동산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학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세 위령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2월 18일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해당지구 대성학원 건물 3층
(061)277-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주점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주점 ☎268-8111
▶ 학장리,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마을빌딩 4층

=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정, 교서관, 법, 검찰, 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 활공관정전호지방술

30주 부특별반
10기 능력직급
* 주-이간 생활리 강령 * 일반상시, 한국사, 2과목 *

'09년 시험안내
12월 15일 (주-아)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 17만원 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圖) 무료특강 *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www.mdgosl.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